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가장 난해한 본문으로 손꼽히는 본문입니다. 우선 이 비유의 결론 13절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이 이 비유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증서를 위조하고, 주인의 재산에 피해를 끼친 것 같아 보이는 사람에게 왜 칭찬을 하신 것일까요?

우선, 우리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빌리고 갚는 상황에서 오는 이자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신명기 23장 19~20절) 유대인들끼리는 이자를 받으면 안됩니다. 식물이든, 돈이든 무엇이든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모든 고대 기록을 보면 고리의 이자가 성행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통상 50%를 상회하는 이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모순은 어떻게 해결될까요? 구약 율법에서는 형제와 이웃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지만 많은 기록에서 예수님 당시에 고리 이자가 성행했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줄 때 미리 이자를 포함해서 증서에 적어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 주시기 원했던 재물에 대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는 재물에 대해 청지기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막대한 재산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종을 의미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청지기가 알아야 하는 것은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과 주인의 것을 주인의 뜻에 따라 주인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 나의 마음과 생각, 나의 시간, 당연히 나의 재산도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청지기가 등장하는 비유가 몇 군데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주인이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 재산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물질에 대하여 결산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 재물은 주인을 위해, 주인의 뜻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청지기는 왜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게 불의하게 재물을 사용했을까요? 돈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탐심 때문입니다.

그런 그가 자신이 청지기임을 깨닫고 어떻게 변했나요? 말씀을 따라, 주인의 뜻을 따라 돈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주인의 관대함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불의의 재물을 주인을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말씀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습니다. 물질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는데 사용하셔야 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눈으로 보면, 오늘 비유를 설명하며 10-12절에 충성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주인의 것을 가지고 충성하는 것은 주인의 뜻에 따라 주인의 영광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암송

이번 주 외울 말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렸도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통독

이번 주 성경 통독

5/12(월)	5/13(화)	5/14(수)	5/15(목)	5/16(금)	5/17(토)	5/18(주일)
왕하 15-17	왕하 18-19	왕하 20-22	왕하 23-24	왕하 25, 대상 1-2	대상 3-5	대상 6

Q T

이번 주 QT 말씀

5/12(월)	5/13(화)	5/14(수)	5/15(목)	5/16(금)	5/17(토)	5/18(주일)
민 22:1-14	민 22:15-30	민 22:31-40	민 22:41-23:12	민 23:13-26	민 23:27-24:9	민 24:10-25

나눔

목장 나눔 문제

1. 지난 주 말씀 혹은 한주간의 큐티 말씀을 통해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세요.

2.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되거나 은혜 받은 것을 나누어 주세요.

3. 나는 물질, 재물에 대해 청지기임을 알고, 청지기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